

스웨덴 근·현대 가구 디자인의 특성과 브루노 맛손(Bruno Mathsson)의 작품세계¹

홍민정² · 최정신^{† 3}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wedish Modern Furniture Design and the works of Bruno Mathsson¹

Min Jung Hong² · Jung Shin Choi^{† 3}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Swedish modern furniture design and the works of Bruno Mathsson, who is appreciat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rniture designers in the history of modern Swedish design.

First, the authors examined how the Swedish designers set the value of warm, graceful humanity, practical simplicity, and the traditional craftsmanship in their furniture design with modernist ideology. Second, by examining the range of Bruno Mathsson's works from the 1930s to the 1980s, the authors searched for how these works show the realized models of the ideals of Swedish modern furniture.

In this, this article explains that Mathsson's works and the modern Swedish furniture could have been regarded and beloved as being innovative and modern for more than 50 years for their friendliness to human body by the ergonomic structure and to human feeling by the quality of natural materials and finishes. In addition, their consistent effort to adopt traditional craftsmanship into functionalist ideals of modern design shows how these furniture designs could have keep the lasting quality in the life of people in different time frames.

Keywords : Scandinavia, Sweden, Furniture Design, Bruno Mathsson.

1. 논문접수: 2009. 05. 11.; 심사: 2009. 05. 28.; 게재확정: 2009. 09. 15.

2.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 주거학 전공 강사, Dept.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420-743, Korea

3.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 주거학 전공 교수, Dept.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420-743, Korea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Jung Shin Choi(E-mail: jjschoi@catholic.ac.kr).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스웨덴 디자인의 특성을 형성하게 된 중요한 사회적 배경에는 우선,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실현'이라는 스웨덴 정부의 사회복지국가에 대한 이상,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문화향수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자국의 디자이너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후원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결과물로서의 디자인 제품들을 사회적으로 널리 보급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부유한 특정 계급뿐 아니라 스웨덴 국민이라면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의 질 좋은 상품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러한 정책적 디자인 지원 대상에는 크게는 도시, 건축 디자인에서부터 작게는 가구, 일상생활용품 디자인에 이르기 까지 디자인 전반 분야가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스웨덴의 가구 디자인은 이러한 스웨덴 디자인 정책의 공리적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좋은 사례로서 그 기능성과 합리성에 있어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디자인 연구의 주요 관심은 근대 서구 디자인 운동의 근원지였던 서유럽 대륙의 디자인에 집중되어오면서,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의 주변 국가들이 주류의 디자인 원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토착화 시키고 새로운 전통으로 발전시켜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스칸디나비아 가구에 대한 연구에 덴마크 민속가구에 대한 연구, 덴마크 민속가구와 한국의 민속가구 비교연구를 위한 일련의 연구들을 비롯하여(최 1995; Choi 1995; 최 1996; 최 1997), 스웨덴을 포함한 스칸디나비아의 가구와 디자인, 가구디자이너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다(한 1990; 강 1998; 이 2001; 김 2005; 김&이 2005; Kim 2006). 그러나 평생에 걸친 디자인 활동을 통해 스웨덴 근·현대 가구 디자인의 중요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온 작가로서,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였던 브르노 마손(Bruno Mathsson)의 작품세계를 구체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세기 가구 디자인 사에 있어서 단순성, 합리성, 실용성과 더불어 우아하고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양식, 그리고 사회 민주주의의 공리적 이상이 적절하게 조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스웨덴의 근·현대 가구 디자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동안 지리상의 거리, 문화적 생소함 등으로 인해 연구가 부진했던 분야를 새롭게 조명해 본다는 데에 1차적 의미를 두었다. 또한, 20세기 스웨덴 가구 디자인 분야의 대표적 작가로서 브르노 마손의 작품세계를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의 작품 안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스웨덴 근·현대 가구 디자인의 본질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 특성을 이루는 주요 요소들에 대한 가시적 사례를 찾아냄으로써 근대 디자인의 이상이 오늘날 스웨덴 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화 되어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1-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스웨덴 근·현대 디자인의 주요 특성을 알아본다.
- 2) 스웨덴 근·현대 가구 디자인의 특성을 알아본다.

3) 브루노 맛손의 가구 디자인 분석을 통하여 스웨덴 근·현대 가구 디자인의 특성을 이루는 주요 요소들에 대한 가시적 사례를 찾아내고, 브루노 맛손의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알아본다.

2. 스웨덴 근·현대 디자인과 가구 디자인의 특성

2-1 근·현대 디자인 이념의 형성과 출발

스웨덴 미술·공예사에 있어서 근대 디자인의 출발점을 논하는 데에는 몇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일반적으로, 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칼 라손(Carl Larsson, 1853-1919)이 스웨덴 중부의 슌드본(Sundborn)에 있는 자신의 집에 스웨덴 스타일의 인테리어 디자인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한 1897년을 출발점으로 보는 견해와(Fig.1), 스웨덴 디자인협회(Svensk Form: The Swedish Society for Industrial Design)가 스톡홀름의 릴리에발크스 갤러리(Liljevalchs Art Gallery)에서 주택전시회(Hemutställning; Home Exhibition)를 개최한 1917년을 출발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Fig.2).

칼 라손은 텍스타일 디자이너였던 그의 아내 카린(Karin Larsson, 1859-1928)과 함께 그들의 집을 농촌 취향의 목가적 스타일, 지방색이 가미된 로코코와 구스타브 스타일, 그리고 마을 목수의 토속 스타일이 결합된 디자인으로 꾸미고, 1899년, 그 안에서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수채화 작품들을 발표했다. 작가이자 교육가, 여성 운동가로서 스웨덴의 근대화를 위해 활발한 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인 엘렌 케이(Ellen Key, 1849-1926)는 이 작품들을 보고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같은 해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움(Skönhet för alla; Beauty for all)'이라는 책을 통해 일상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사회변혁을 주장했다. 엘렌 케이가 당시 라손의 집을 보고 크게 감탄한 부분은 라손의 집이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 스웨덴적인 것과 이국적인 것(유럽 대륙의 선진 양식)을 독창적으로 결합하여 아름다우면서도 쾌적한 주거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편, 1917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주택전시회에서는 일상의 모든 생활용품을 아름답고 합리적으로 만듦으로써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자 한 당시 스웨덴 정부의 디자인적 이념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후 스웨덴 근·현대 디자인 전반을 이끄는 중요한 이념이 되었다. 이 전시회의 기획과 실현에는 가구 디자이너 칼 말름스텐(Carl Malmsten, 1888-1972), 건축가 에릭 군나르 아스플룬드(Erik Gunnar Asplund, 1885-1940), 그리고 미술 비평가이자 이론가 그레고르 파울손(Gregor Pauls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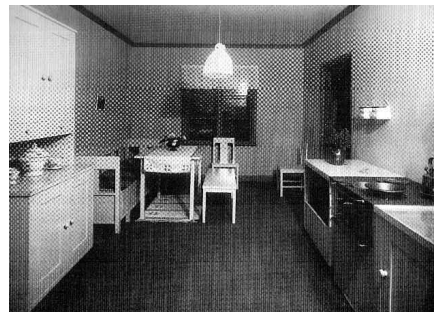


Fig. 1. Interior of Sundborn house by Carl Larsson (Klein & Widbom 1994)

Fig. 2. Housing design at "Hemutställning (Home Exhibition)" Stockholm 1917 (Klein & Widbom 1994).

1889-1977)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그레고르 파울손은 1919년, '보다 아름다운 일상생활 용품들(Vackrare Vardagsvara: More beautiful things for everyday)'이라는 책을 통해 이 주택 전시회의 정신을 계승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스웨덴 근·현대 디자인 정신과 이념을 대변하는 일종의 슬로건이 되었는데, 이는 단순성, 자연적 이미지, 디자인을 통한 민주주의 이상 실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스웨디시 모던(Swedish Modern) 양식의 확립에 이론적인 토대가 되어주었다.

2-2 수공예적 품질과 현대적 기능의 조화

스웨덴 근·현대 디자인의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전통 수공예의 품질을 중시하는 장인 정신, 엄격한 기능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적 이상의 복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웨덴의 디자이너들은 높은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수공예 전통과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현대적인 조형언어를 조화시키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왔다. 실제로 스웨덴의 미술·공예 분야는 17세기에는 독일, 18세기에는 프랑스, 19세기에는 영국으로부터 직, 간접적인 영향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외래 선진문화로서의 자극과 영향을 있는 그대로 재현, 모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표현방식으로 토착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예컨대, 칼 말름스텐은 극단적인 절제미를 하나의 일관된 가치로 삼은 일련의 가구조형을 통해 스웨덴의 전통적 유산과 새로운 시대의 현대적인 가치를 통합하기 위해 평생을 보낸 디자이너로 평가 받는다. 말름스텐은 1900년대 초 스웨덴의 선구적 아방가르드 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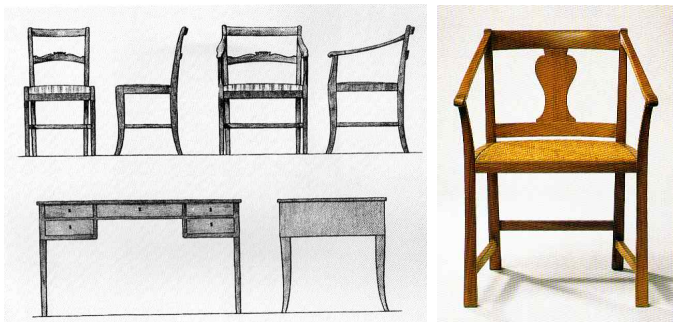


Fig. 3. (left) Sketches for chairs and desk, by Carl Malmsten, c. 1912 (Fiell 2005) / (right) Walnut armchair, by Carl Malmsten, 1915 (Fiell 2005).



Fig. 4. (left) Easy Chair, by Mats Theselius, 1990 (Fiell 2005) / (right) Bruno Chair, by Mats Theselius, 1997 (Fiell 2005).

이너 중의 한 사람으로서, 주로 구스타브 스타일을 현대화하여 기능적인 단순성과 장식적인 명료성을 실현하는데 주력했는데, 이를 통해 그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디자인에 있어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적 따뜻함을 지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웨덴의 민속예술에 문화적 바탕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그의 믿음을 실천해 보인 것이었다(Fiell, 2005). 그는 가구의 재료로서 목재를 항상 최고의 위치에 두었고, 항상 한 디자인 안에 새로운 것과 전통적인 것을 접목시키려고 노력하였다(Fig. 3).

스웨덴 전통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 디자인을 위한 말름스텐의 노력은 오늘날 '원시적인 스웨덴풍의 가구'를 만드는 디자이너로 잘 알려져 있는 마츠 테셀리우스

(Mats Theselius, 1956 -)의 작업에도 이어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작업은 스웨덴의 민속적인 형태와 산업화 시대 이후의 신 재료 사이의 대비를 보여준다거나, 철, 무스(moose: 스웨덴에 서식하는 말코 손바닥 사슴) 가죽, 자작나무 껍질, 사슴 뿔 등과 같은 전형적인 스웨덴 토속의 재료를 현대적 조형의 가구 디자인에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테셀리우스는 가구의 형태에 있어서는 통나무를 파내어 만든 스웨덴 고대의 블록의자, 농부들이 사용하던 작업용 가구의 모티브를 폭 넓게 사용하면서도 현대인들의 감수성과 기능적 요구에 부합하는 가구를 제작해오고 있다(Fig. 4).

2-3 기능주의 디자인을 통한 민주적 이상의 실현

전통 수공업의 가치와 현대적인 조형언어의 조화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스웨덴의 근대화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기능주의적 디자인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적 평등에 대한 이상'이었다. 따라서 스웨덴에서 굿 디자인(good design)으로 꼽는 제품에는 소수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값비싼 제품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성격의 제품들이 많다. 사실, 이와 같은 민주적 생활환경의 구현에 대한 이상은 스웨덴의 디자인적 이상으로서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20세기 초 유럽대륙의 기능주의 디자이너들의 공통적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사회 민주주의의 정치이념이 기능주의 디자인의 민주적 성격을 적극 채용하고 장려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런 배경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스웨덴 정부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도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상용품의 디자인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보장해 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 스웨덴의 디자인 제품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강 2004; 홍 2005; Fig. 5).

한편, 앞서 언급한 엘렌 케이와 그레고르 파울손의 디자인을 통한 사회개혁의지, 즉 '모두를 위한 아름다움', '보다 아름다운 일상생활용품들'의 이상은 스웨덴 사회의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 노동자 계층을 위한 대규모 주택공급 및 생활개선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정부기관 및 디자인 생산업체들은 사회전반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자인 생산자로서 디자이너나 생산업체들뿐 아니라 디자인 수요자인 소비자들의 안목을 높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각종 디자인 관련 전시 개최, 신문칼럼 연재, 일반인 대상 야간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소비자 교육컨텐츠 개발과 실천을 통해 일반 대중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에 투자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발된 각종 디자인교육 프로그램과 생활문화연구 프로그램들은 정확하고 합리적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표준적 생활용품의 디자인 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양질의 제품들이 일반 소비자들의 생활 속에서 실용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체계에의 집중적 투자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힘을 얻



Fig. 5. Design products series for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Apoteket catalog).

게 되었다. 이러한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표준화 작업은 1970년대 말, 스웨덴의 디자인계가 일관된 기능주의 디자인 이념에 의한 소비자들의 개성과 인간성 상실을 하나의 위기로 자각하기 이전까지 꾸준히 진행되었다(홍 2005).

이러한 스웨덴 디자인의 민주주의적 특성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인 이케아(IKEA)의 경영사례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이케아는 1943년 스웨덴 남부의 작은 마을 스몰란드(Småland)에서 잉그바르 캄프라드(Ingvar Kamprad, 1926-)에 의해 창업된 가구 및 토탈 인테리어 제품 생산업체이다. 이케아의 가장 혁신적인 발상은 고품질, 저가격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 시스템으로, 전체 아이템의 효율적인 생산관리 및 합리적 물류시스템을 가능케 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디자인 경영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이 2003). 이와 같은 이케아의 성공 배경에는 가난한 시골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혁신성과 실용성, 미학적인 측면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디자인을 목표로 출발해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폭넓은 소비자층에게 높은 디자인 감각을 제공하려했던 이 회사의 초기 기업정신이 자리하고 있다.

2-4 스웨덴 가구디자인의 특성

스웨덴의 가구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다른 디자인 분야의 특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수공예품의 가치와 현대적 산업 디자인의 조건을 하나로 융합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 스웨덴 산업디자인협회(Svensk Form)의 전신인 스웨덴 수공예협회(Svenska Slöjdföreningen: Swedish Society of Handicraft)가 주최한 스톡홀름 전시회(Stockholmsutställningen; Stockholm Exhibition)는 스칸디나비아 모던 디자인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중요한 전시였는데(Fiell, 2005), 이 전시는 스웨덴 디자인에 있어서도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된 전시였다. 이 전시 이후로 스웨덴의 가구산업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유행을 뒤따르기 보다는 고유의 전통을 상징적으로 적용하고, 이론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한정된 지구자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자각, 환경과 인간공학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식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구체적인 디자인에 적용된 국가가 바로 스웨덴이었다. 즉, 스웨덴에서의 가구 디자인은 단지 스타일만을 고민하는 작업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측면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다기능, 고품질의 제품에 대한 스웨덴의 명성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1969년, 인간중심의 디자인을 표방하며 결성된 '에르고노미 디자인 그룹(Ergonomi Design Gruppen)'의 활동을 통하여 그 의미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며,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용품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스웨덴 가구 디자인의 기능주의 이념은 간단한 예로, 의자 디자인에 있어서도 의자와 관련된 사람의 행위와 동작의 내용을 최대한 간소화 하여, 앉기 위한 기능에만 필요한 의자의 원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디자이너의 작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또한 근대 기능주의 의자 디자인의 아이콘 격으로 평가받고 있는 강철 파이프 의자의 디자인 개념과 상통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디자이너들은 강철파이프는 공공장소인 대합실이나 상점 등을 위한 의자 디자인에는 적합하나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차가운 재료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기능적 의자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는 동일하나, 보다 따뜻한 감수성을 전달할 수 있

는 재료인 목재를 사용한 벤트우드(bent wood) 디자인에 대한 집중적인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강철관을 대신할 수 있는 스웨덴 특유의 목재 캔틸레버 의자 디자인을 개발해내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사실 스웨덴과 이웃한 핀란드의 알바알토(Alva Aalto)나 덴마크의 아르네 야콥슨(Arne Jacobsen)이 디자인한 성형합판의자에서도 함께 보이는 스칸디나비아 의자 디자인의 공통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스웨디시 모던(Swedish Modern)의 사상을 잇는 브루노 맛손(Bruno Mathsson)이나 칼 말름스텐(Carl Malmsten)과 같은 가구 디자이너들이 강철관의 사용을 거부하고 주로 나무와 천연소재로 벤트우드 의자를 디자인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가구는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등의 목재가 애용되어 밝은 색상과 질감을 유지한 채로 살아있는 나무의 숨결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책상, 선반 시스템, 의자 등의 사무용 가구에는 이러한 목재와 함께 회색의 알루미늄을 광택을 낸 강철을 조화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스웨덴 가구의 전형적 디자인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판매, 사용되고 있는 이케아의 가구 디자인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데, 이케아의 가구는 오늘날 가구 시장에서 스웨덴의 실용주의적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단순성, 실용성, 디테일에의 집중, 밝은 색상과 생동감 넘치는 형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특유의 명료함 등이 더해져 스웨덴 디자인의 양식적 특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Fig. 6)



Fig. 6. Furniture Design by IKEA from 1970s to 1990s (Klein & Widbom 1994).

스웨덴에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디자인 그룹들이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양질의 디자인과 제작 기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스웨덴 디자인협회 이외에도 수공예 가구를 충실히 발전시켜온 스웨덴 수공예 교역협회(Hantverkshuset)와 실생활 속 양질의 가구 문화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좋은 품질의 생활용품 및 가구의 유통에 힘써 온 스톡홀름의 대형 백화점 노르디스카 콤파니엣(Nordiska Kompaniet) 등의 공헌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기업 및 단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들에서도 자체의 새로운 가구 디자인을 꾸준히 개발하고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가구회사인 람홀츠(Lammhults), 아스플룬드(Asplund), Gärsnäs(에르스네스), Källemo(셀레모), 놀라(Nola), 이케아(Ikea) 등의 업체에서 구닐라 알라르드(Gunilla Allard), 루베 아르벤(Love Arben), 토마스 산델(Thomas Sandell), 마츠 테셀리우스(Mats Theselius), 카밀라 베스만(Camilla Wessman) 등의 디자이너들이 이러한 합리적이고 감각적인 스웨덴 가구디자인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주역들이다(이 2001).

3. 브루노 맛손의 가구 디자인 분석



Fig. 7. Bruno Mathsson in 1940s.

브루노 맛손(Bruno Mathsson)은 1907년 스웨덴 남부 산림지대의 작은 마을 베르나모(Värnamo)에서 4대째 캐비닛 메이커로 일해 온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칼 말름스텐, 에릭 군나르 아스플룬드와 함께 스웨덴 근·현대 가구 디자인의 위대한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브루노 맛손의 가구 디자인은 1931년부터 1986년까지 55년 간 발표된 작품들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스칸디나비안 디자인(www.scandinaviandesign.com)과 브루노 맛손 재단의 홈페이지(www.bruno-mathsson-int.com)에 맛손의 대표적 가구 디자인으로 제시된 주요 디자인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가구 모델은 총 29개의 대표 모델로, 모델 별로 선택 사양이나 변형 모델이 있는 경우 대표 모델만 포함시켰다. 가구의 종류는 우선 구조와 용도에 따라 의자, 테이블, 수납가구로 나누었으며, 이들을 다시 시대 순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 Table 1의 내용이다.

맛손은 부친인 칼 맛손(Karl Mathsson)의 공방에서 가구 제작과 관련된 최초의 수련과정을 거치고, 그 공방에서 1923년부터 1931년까지 근무했다. 1930년대 초, 스웨덴에서는 악셀 라손(Axel Lasson)이나 스벤 마켈리우스(Sven Markelius)와 같은 디자이너들이 목재로 디자인한 딱딱한 느낌의 기하학적 형태의 기능주의 가구 디자인이 지배적 양식이었다. 그러나 맛손은 이 시기의 딱딱한 기능주의 디자인 경향과는 달리, 의자 디자인에 있어서 부드러운 유기적 형태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게 되면서 본격적인 가구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드디어 1933년, 맛손 최초의 가구 디자인으로서 작업용 의자(Arbeitsstol: Working Chair)가 제작되었으며, 1933년과 1936년 사이에는 이 작업용 의자의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통해, 스웨덴 가구 디자인이 기하학적인 기능주의에서 유기적인 모더니즘으로의 전환기로 접어들도록 이끈 중요한 의자 디자인들이 탄생하였다(Fiell, 2005).

맛손은 의자는 사람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인체공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의자를 디자인하였다. 그는 의자 구조체의 비례, 인체곡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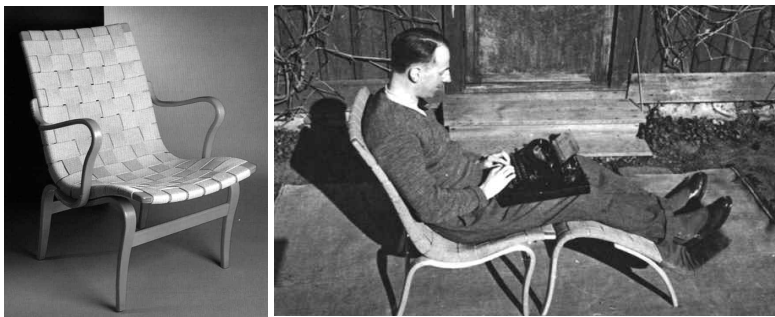


Fig. 8. (left) Eva Chair, by Bruno Mathsson, 1934 (Fiell 1997) / (right) Mathsson demonstrating his ideal working position (Widman et al. 2006).

에 대응할 수 있는 의자의 형태, 한계중량에 대한 분석 등을 의자 디자인의 매우 중요한 문제로 삼았다. 맛손은 특히, 인체곡선에 부합하는 의자의 형태를 위해 1930년대에 이미 기계 설비를 이용한 벤트우드(bent wood) 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기법은

동시대 핀란드의 알바 알토(Alvar Aalto)도 실험한 기법이였다(마트손의 작업은 알토의 43번 라운지 체어(1936년)와 406번 의자(1936-1939년)의 탄생을 예견한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마트손의 의자는 알토의 의자보다는 덜 실용화 되었지만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보다 더 인체공학적이고 보다 더 현대적인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창의적인 실험과 시도는 가구 디자인의 새로운 기법뿐 아니라 인간의 감성에 작용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탄생시켰고, 그러한 혁신적인 스타일은 당시보다 오히려 오늘날 더욱 적절한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는 의자에 최대 유연성과 안락감을 주기 위하여 부피가 큰 업홀스터리(upholstery) 대신에 통기성이 좋은 황마 직조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목재로는 스웨덴의 견고한 자작나무를 즐겨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목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무의 성질을 조형과 디자인에 효과적으로 응용하는 것만큼이나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으로 여겨,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계획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작업을 했다. 마트손은 1934년, 라미네이트한 너도밤나무 프레임에 황마 끈을 엮어 몸체를 만든 가벼운 곡선형의 의자, 에바 체어(Eva Chair)를 발표함으로써 인체공학적인 기능 문제에 집중한 의자도 충분히 아름답고 조형적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Fig 8). 또한, 같은 시기에 발표된 타원형의 테이블은 테이블 사용에 있어서 공간과 동선의 문제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테이블의 Y자형 다리는 경쾌하고 안전감을 더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작품이 되고 있다(한 1990).

마트손은 평생을 고향인 베르나모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자신의 예술세계에 집중하였으나, 그의 작품을 통한 국제적 교류의 양상을 보면, 실제로는 상당한 국제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일찍이 1940년대에 부인인 카린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며 찰스 임즈, 발터 그로피우스, 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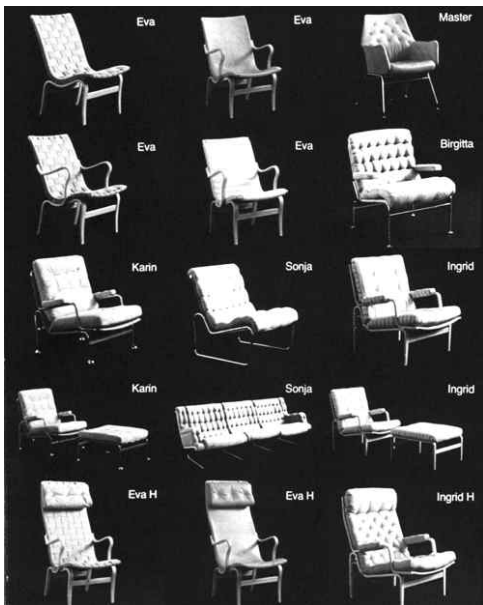


Fig. 9. The product catalogue BRA BOHAG 78/79, showing mathsson's furniture collection with product names (Widman et al. 2006).

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등과 같은 세계적으로 선구적인 건축가와 디자이너 그룹과 접촉한 바 있으며, 덴마크, 특히 코펜하겐을 좋아해서 그 곳의 디자이너들과의 다양한 작품교류를 펼쳤다. 이러한 교류의 내용은 덴마크의 피에트 하인(Piet Hein)과 협동으로 제작한 슈퍼엘립스 테이블(Superellipse Table) 등이 잘 설명해 준다. 1970년대에는 일본과의 교류도 진행하여, 일본에서는 오늘날까지도 그의 주요 디자인들이 라이센스 생산, 판매되고 있다.

마트손은 오늘날, 투지와 지혜가 뛰어난 예술가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작품은 형태가 단순하고 우아한 가운데 그 특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그의 거의 모든 작품은 뛰어난 기능성과 형태적 아름다움이 통합적으로 구현된 가구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라미네이트 목재를 구부려 제작한 다양한 의자 디자인을 보면 우리는 인체공학적인 면에서 더 이상 어떠한 다른 형태로도 능가할 수 없는 '앉는 선(sitting line)'으로서의 곡선이 지니는 순수한 기능

성과 그 선에서 느껴지는 섬세한 우아미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또한 각각의 의자 모델에 에바, 카린, 잉그리드, 소냐, 페닐라 등과 같은 여성의 이름을 붙여 자신이 디자인한 가구들에게 일종의 인간적 아이덴티티를 부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는 그가 지녔던 디자인적 상상력과 가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맛손의 대표적인 가구는 대부분 1930년대와 40년대에 걸쳐서 디자인된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새롭고 독특한 느낌을 전해주는 것은 이러한 그의 실험 정신과 창의력이 그의 가구 디자인 안에 생생하고 대담하게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Table 1의 내용을 바탕으로 맛손의 작품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맛손이 평생에 걸쳐 디자인한 가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의자였다. Table 1에 포함된 총 주요 모델 가운데 차지하는 의자의 비중만 보아도 그의 의자 디자인에 대한 집중도를 알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그의 의자 디자인에서는 경량 구조, 인체공학적인 곡선이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천연 목재, 라미네이트 처리한 목재, 또는 강철을 의자 디자인의 프레임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활동 초기인 1932년부터 1945년까지는 주로 목재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1965년 이후에는 강철 프레임도 상당수 사용한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스웨덴 도착 환경으로부터의 천연 소재인 목재를 사용한 의자 디자인에 대한 충분한 실험과 실용화 작업이 안정기에 접어든 후에 맛손 스스로 또 다른 실험을 위한 소재로서의 강철소재를 받아들인 것에 의한 결과가 아닐까. 특히, 1945년은 맛손 최초의 건축물이 지어진 해이며, 맛손이 그 이후로도 건축 활동을 지속해 갔다는 점에 미루어, 필자는 이러한 디자인 작업내용의 다양화가 가구 디자인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한 구조 및 재료의 가능성을 실험하게 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더불어, 피에트 하인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디자이너들과의 국제적 교류에서 받은 영향도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함께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의자 디자인에 즐겨 사용한 목재는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등으로 주로 가공하지 않은 목재의 자연색을 사용하였는데, 간혹 백색 라미네이트를 겹하여 쓰기도 하였다. 좌판은 마섬유로 된 직조 끈을 엮어서 통기성, 신축성이 좋으면서 동시에 사용하기 가벼운 구조로 만들어졌다. 업홀스터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죽, 폴리에스터 등이 사용되었고 가죽이나 천으로 된 싸개단추를 달아 언제든지 쉽게 씌우고 벗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용성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안락의자에는 베개를 함께 달아 추가적인 안락함을 배려했다. 특히, 1965년 이후에 발표된 강철 프레임의 의자들은 주로 사무용 가구로, 폴리에스터나 가죽으로 좌판을 씌웠고 겹쳐 쌓을 수 있도록 하여 컨퍼런스용 의자로도 적합하게 디자인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맛손의 주요 테이블 디자인들은 주로 원형, 타원형의 상판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다리모양은 같은데 직사각형, 정사각형 상판을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도 있다. 상판은 필요에 따라 조합 형태가 변형 가능한 디자인이 많으며, 테이블의 구조는 주로 목재 상판에 목재다리 또는 강철재 다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테이블 디자인에 사용된 목재는 의자에서와 마찬가지로 너도밤나무,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체리, 오크 등 다양한 수종이고, 다리 재료로 목재 이외에 강철이 사용되었다. 테이블의 디자인은 가능한 한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용도에 적합하게 형태 및 배치를 변경하여 하도록 상판을 접고 펴게 하거나, 각각의 부분들을 서로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리 개수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네 개뿐 아니라, 세 개, 또는 지지대 하나만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다리가 세 개인 '아니카 테이블(Annika table, 1936)'은 테이블 다

리가 차지하는 공간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구조인데, 이는 스웨덴 민속의자에서 흔히 사용되는 세 개의 다리 구조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다리가 세 개인 의자는 보통 네 개의 다리로 된 의자보다 오히려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바닥이 울퉁불퉁 한 스칸디나비아 시골 농가에서 고대로부터 채용되었던 방식이다, 최 & 구덕순 1997). 쿤엔 테이블은 각기 다른 크기나 형태의 테이블 상판에 다리를 쉽게 교체,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고, 기본 테이블 6개 좌석에 추가 테이블 2개 좌석을 더하는 방식으로 무한정 추가 테이블 접속이 가능하여 회의 장소에서 사람 수에 제한받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이러한 마트손의 테이블 디자인은 그 사용의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위에서 제시했던 스웨덴 기능주의 디자인의 주요 이론을 이상적으로 현실화 한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수납가구류로 디자인한 선반과 캐비닛도 다른 가구 디자인에서와 같이 매우 가볍고 단순한 구조를 기본으로, 하단부에 바퀴를 달거나 가변 칸막이를 채용함으로써 사용 장소에 따라, 혹은 수납의 목적에 따라 쉽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이는 테이블 디자인에서와 같은 철저한 기능주의 디자인의 구체적 특성을 보여주는 점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마트손의 가구 디자인을 품목별로 분석해 본 결과, 그는 편안한 의자를 디자인하기 위하여 자신이 평소에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무거운 업홀스터리 대신에 가벼운 재료로 된 좌판을 선호하였고 라미네이트 목재를 이용한 인간 친화적인 인체공학의 곡선을 채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가구의 전통대로 공간절약을 위한 겹쳐 쌓기 의자와 다리 수를 줄인 테이블 구조를 현대적 재료를 사용한 가구 디자인에 적극 채용하여 기능적 전통성의 현대적 응용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특징은 특히, 마트손의 가구가 기능주의적이면서도 차갑지 않으며 스웨덴의 전통적인 가구 디자인의 기능을 현대적으로 활용한 디자인이라고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1. Furniture Designs of Bruno Mathsson from 1931 to 1986




1. 의자류						
번호	이름/용도	형태	발표 년도	규격 (W*D*H)	재료	기타
(1)	Mi 037-Berlin/ 데이베드		1932	800*2190* 550/490	프레임: 라미네이트 너도밤나무. 좌판: 직조된 베이스에 검정 가죽싸개 단추를 단 폴리에스터 덮개.	
(2)	Mi 40-1 Mimat/ 의자		1932	475*535* 830/420	프레임: 자작나무 원목. 좌판: 마 또는 가죽 끈.	
(3)	Mi 036- / 라운지 체어		1933- 1936	525*1670* 870/320	좌판 프레임: 자작나무 원목. 하부 프레임: 라미네이트 너도밤나무. 좌판: 황마 직조끈.	베개 있음.

(4)	Mi 471- Eva Chair/ 이지체어		1934	490*710* 820/340	프레임: 라미네이트 너도밤나무. 좌판: 황마 직조근.	팔걸이 없는 디자인도 있음. Mi 475- 3인용 소파 모델 있음.
(5)	Mi 473- Eva high/ 이지체어		1941 (1933)	600*740* 1100/340	좌판 프레임: 자작나무 원목. 팔걸이: 라미네이트 너도밤나무. 좌판: 황마 직조근.	폴리에스터 업홀스터리 모델도 있음. 베개 있음.
(6)	Mi 427- Miranda and Mifot/ 이지체어.		1941	640*880* 1020/310	프레임: 라미네이트 너도밤나무. 좌판: 황마 직조근.	단추로 끼우는 폴리에스터 또는 가죽 덮개천 선택. 베개 있음.
(7)	Mi 425-Mina/ 이지체어		1978 (1942)	490*710* 820/340	프레임: 라미네이트 너도밤나무. 좌판: 황마 직조근.	좌판 위에 폴리에스터 업홀스터리. 직물 또는 가죽싸개 단추로 고정.
(8)	Mi 477- Pernilla 2 & Mifot/ 이지체어		1944	660*860* 1000/260	좌판 프레임: 자작나무 원목. 팔걸이: 라미네이트 너도밤나무. 좌판: 황마 직조근.	폴리에스터나 가죽으로 업홀스터리 선택. 베개 있음.
(9)	Mi 478- Pernilla 3/ 라운지체어		1944	650*1680* 910/300	좌판 프레임: 자작나무 원목. 하부 프레임과 팔걸이: 라미네이트 너도밤나무. 좌판: 황마 직조근.	양가죽 또는 폴리에스터로 업홀스터리. 베개 있음
(10)	Mi 435-Anna/ 스툴		1945	605*355* 535/480	좌판: 라미네이트 너도밤나무 몰드 위에 폴리에스터 패딩.	패브릭 또는 가죽 커버
(11)	Mi 065- BM 65/ 의자		1965	550*560* 805	프레임: 강철관 . 좌석과 등받이: 물푸레나무.	검정가죽 팔걸이 선택.
(12)	Mi 466- Jetson/ 이지 체어		1965	570*820* 985/300	프레임: 강철관. 회전 베이스: 크롬도금 강철. 좌판: 단추 스티치로 된 폴리에스터 폼 패딩. 초강력 폴리에스터 지지망. 폴리에스터 또는 가죽 커버.	베개 있음.

홍민정 등-스웨덴 근·현대 가구 디자인의 특성과 브루노 마트손(Bruno Mathsson)의 작품세계

(13)	Mi 405-Mia/ 겹쳐쌓거나 이어 붙일 수 있는 팔걸이 없는 의자.		1972- 1973	500*580* 790/435	프레임: 크롬도금 강철관. 좌판: 지지끈 위에 버튼 스티치 한 폴리에스터 또는 가죽 덮개.	Mi 407-Mia 팔걸이 있음.
(14)	Mi 440-Mikael/ 컨퍼런스 의자		1974	610*630* 880/450	다리: 크롬도금 강철관. 베이스: 크롬도금 원형 강철. 좌판: 지지끈 위에 버튼 스티치 한 폴리에스터 또는 가죽 덮개.	시트 쿠션은 뒤집어서 사용가능.
(15)	Mi 441-Milton/ 중역의자 또는 컨퍼런스 의자.		1975	610*630* 880/450	회전 베이스: 크롬도금 원형강철. 좌판: 지지끈 위에 버튼 스티치 한 폴리에스터 또는 가죽 덮개.	시트 쿠션은 뒤집어서 사용가능.
(16)	Mi 442-Mirja/ 컨퍼런스 의자.		1978	610*630* 880/450	다리: 크롬도금 강철관. 좌판: 지지끈 위에 버튼 스티치 한 폴리에스터 또는 가죽 덮개.	시트 쿠션은 뒤집어서 사용가능.
(17)	Mi 444-Mirja/ 바퀴달린 컨퍼런스 의자.		1978	610*630* 880/450	다리: 크롬도금 강철관. 좌판: 지지끈 위에 버튼 스티치 한 폴리에스터 또는 가죽 덮개.	시트 쿠션은 뒤집어서 사용가능.
(18)	Mi 406-Mio/ 겹쳐 쌓거나 이어 붙일 수 있는 팔걸이 없는 의자.		1981	500*600* 810/440	다리: 크롬도금 강철관. 좌판: 지지끈 위에 버튼 스티치 한 폴리에스터 또는 가죽 덮개.	Mi 408-Mio 팔걸이 있음.
(19)	Mi 459- Minister/ 이지 체어		1986	620*810* 1060/320	프레임: 크롬도금 강철관. 회전 베이스: 크롬도금 원형강철. 좌판: 가로스티치를 넣어 박은 폴리에스터 천 또는 가죽덮개.	베개 있음.

2. 테이블류						
번호	이름/용도	형태	발표 년도	규격 (W*D*H)	재료	기타
(1)	Maria- / 접는 테이블		1935	900* 230~280* 720	트레슬: 천연 자작나무. 상판: 물푸레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체리, 오크 등 가능	백색 라미네이트 가능.
(2)	Mi 580- Annika/ 세 다리 테이블		1936	450*450* 320	다리: 라미네이트 또는 원목 자작나무. 상판: 물푸레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체리, 오크 등 가능	Mi 595- 직사각형 테이블. 백색 락카, 라미네이트 가능.
(3)	Linda- / 갈라진 다리의 테이블		1948	520*520* 630(or700)	다리: 라미네이트 너도밤나무. 상판: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체리, 오크 등 다양.	백색 락커, 백색 라미네이트 가능. 정사각형, 직사각형 디자인 있음.
(4)	쪼갠 다리의 테이블		1968	450*520* 700	다리: 자작나무 원목. 상판: 물푸레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체리, 오크 등 가능	백색 락커, 백색 라미네이트 가능.
(5)	Superelips- / 확장형 다리의 테이블		1977	520*520* 630(or700)	다리: 크롬도금 강철관. 상판: 물푸레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체리, 오크 등 가능.	백색 락커, 백색 라미네이트 가능. 다리를 다른 크기나 종류의 테이블 상판에 쉽게 부착가능.
(6)	Kungen- / 컨퍼런스 테이블		1983	450*700* 720(or750)	다리: 확장 가능한 크롬도금 강철관. 상판: 물푸레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체리, 오크 등 가능. ※ 기본 테이블(Mi 182) 2000*1600, 2-parts, 6개 좌석/ 추가 테이블(Mi 183) 750*1600, 2개 좌석 ※ 확장형 다리로 기본테이블에 무한정 추가테이블 접속 가능.	다른 크기나 종류의 테이블 상판에 다리를 쉽게 부착가능. 백색 락커, 백색 라미네이트 가능.
(7)	원주기둥 베이스 테이블		1986	470*470* 520(or700)	베이스: 크롬도금 강철 상판: 물푸레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체리, 오크 등 가능	백색 락카, 라미네이트 가능.

3. 수납가구류						
번호	이름/용도	형태	발표 년도	규격 (W*D*H)	재료	기타
(1)	Mi 1200- / 책꽂이		1941	270*500* 270	몸체: 너도밤나무. 다리: 라미네이트 너도밤나무.	
(2)	Mi 1150- / 선반 테이블		1943	1200*360* 760	상판: 자작나무. 다리: 크롬도금 강철관.	바퀴 있음.
(3)	Mi 806- / 캐비닛		1967	1582*460	미서기문. 내부선반: 백색 락커 도장.	가운데 칸막이만 고정, 나머지는 이동 가능. 잠금장치 있음.

4. 결론

본 연구는 20세기 가구 디자인 사에 있어서 우아하고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양식, 단순성, 합리성, 실용성, 그리고 사회 민주주의적인 이상이 조화되어있다고 평가되어 온 스웨덴의 디자인과 가구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그 동안 지리상, 문화상의 생소함 등으로 인해 연구가 부진했던 분야를 새롭게 조명해 본다는 데에 1차적 의미를 두었다.

또한, 스웨덴 근·현대 가구 디자인의 전통과 이상과 현실, 합리성과 감성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한 꾸준한 모색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디자인계의 중요한 화두인 전통의 현대적 계승, 디자인의 민주화, 디자인의 인간적 감성 회복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이 되고자 하였다. 특히, 스웨덴 근·현대가구 디자인의 본질적 특성과 그 특성을 이루는 주요 요소들에 대한 가시적 사례를 고찰하고자 20세기 스웨덴 가구 디자인계의 대표적 작가인 브루노 맛손의 작품세계를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알아본 브루노 맛손의 가구 디자인의 가장 큰 특성은 그의 디자인이 이미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도 여전히 기능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지닌 디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로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디자인 '고전'의 명성을 지닌 여러 가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히 수집가를 위한 컬렉션 아이템으로 의미가 변질된 경우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실생활을 위한 가구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브루노 맛손 가구들의 변하지 않는 생명력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그의 가구가 그 가치의 중심을 인간에 두고 고민한 끝에 탄생한 디자인 결과로서 인체공학적 특성과 인간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조형성을 동시에 지닌 점, 친숙한 느낌의 자

연 소재를 주로 사용한 점, 그리고 전통 수공예의 장인정신을 기반으로 기능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점에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결국, 이러한 브루노 맞손의 디자인 특성은 스웨덴 근·현대 가구 디자인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합리적이고 감성적이며 인간적인 디자인의 조건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브루노 맞손의 가구가 스웨덴 근·현대 가구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가시적 사례로서 지니는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디자인계가 오늘날 보다 근본적인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데에 있어서 스웨덴 근·현대 디자이너들의 이상과 브루노 맞손의 실천적 노력과정들은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5. 참고문헌

- 강현주. 1998. 1930-70년대 스웨덴의 사회개혁 정책과 현대 디자인의 형성. 디자인학연구 11권: 19-130.
- 강현주. 2004. 디자인사 연구. 조형교육: 77-150.
- 김진우. 2005. 스웨덴 의자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3대 가구회사에서 양산되고 있는 의자 디자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형연구 13호. 건국대 조형연구소: 101-112.
- 김진우, 이한나. 2005.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는 의자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모더니즘 부터 현대까지 나타난 북유럽의 의자디자인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4권 1호: 126-133.
- 이용상. 2003. 이케아의 형성과정과 디자인 전략에 대한 연구. 예술문화논총 12권: 49-62.
- 이지민. 2001. 스칸디나비아 가구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12(1): 82-89.
- 최정신, 구나 쏘뵁. 1995. 한국과 덴마크의 민속 테이블 비교 연구. 한국주거학회지6권2호: 181-189.
- 최정신, 마노 구딕슨. 1996. 덴마크 민속가구 장식의 특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5호: 85-97.
- 한영호. 1990. 스칸디나비아의 가구디자인에 대한 연구. 상명대 논문집: 467-506.
- 홍민정. 2005. 스웨덴 디자인의 민주주의 전통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디자인-. 스칸디나비아연구 제6호: 191-205.
- Arkitekturmuset. 2006. Bruno Mathsson - Designer and Architect. Arkitekturmuset, Stockholm: 93-98.
- Fiell, Charlotte & Peter. 1997. 1000 Chairs. Taschen: 231
- Fiell, Charlotte & Peter. 2005. Scandinavian Design. Taschen: 60-71, 188, 236-237, 244-247.
- Kim, Jinwoo. 2006.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wedish Furniture Company, Källemo's Chair Design. 한국가구학회지 17권 4호: 2-13.
- Klein, Barbro & Widbom, Mats. 1994. Swedish Folk Art. Abrams: 209-233.
- Widman, D., Winter, K. & Stritzler-Levine, N. 2006. Bruno Mathsson - Architect and Designer. Yale University Press: 79, 88.
- www.bruno-mathsson-int.com
- www.scandinaviandesign.com